

도서관 정보



무엇이든 읽고 싶은 날, 아람누리도서관에 가자!



책들이 유혹한다. 미니멀리스트들은 장을 볼 때 반드시 사야 할 품목을 미리 결정한 후 마트에 간다. 무방비 상태로 장을 보게 되면 갖가지 유혹에 빠져 불필요하거나 쓸모없는 물건들을 사게 되기 때문이다. 마트 입장에서는 당연히 후자 쪽의 고객들이 많기를 바랄 것이다. 마찬가지로 아람누리도서관도 읽을 책을 미리 정하고 오는 시민들보

다 준비 없이, 계획 없이 도서관을 방문하는 시민들을 더욱 환영한다. 도서관 곳곳에 시민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고, 유혹하는 책들이 가득 준비돼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책들은 불필요하거나 쓸모없지도 않으며 모두 다 무료로 대출할 수 있다!

① 어린이자료실

- 이달의 작가전

- 어린이를 위한 월별 추천도서 '같이 읽을래?'

아람누리도서관 1층 어린이자료실에서는 국내외 유명 그림책, 어린이책 작가들을 소개하는 '이달의 작가전'을 진행한다. 존 버닝햄, 레오 리오니, 에즈라 잭 키즈, 권정생 등의 작가를 선정해 각 작가의 삶과 개성, 다양한 작품 세계를 심도 있게 다룬다. 또한 어린이를 위한 월별 추천도서 '같이 읽을래?'는 어린이들이 어떤 주제, 관심사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가가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 환경, 민주주의, 선거와 같이 어린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주제부터, 첫사랑, 납량특집, 공룡과 같이 어린이들이 알고 싶은 주제까지 다양하게 다룬다.



② 종합자료실

- 앉으면 읽고 싶어지는 의자



도서관을 자주 찾는 사람이라면 모두 고개를 끄덕여줄 것 같은 생각 하나가 있다. 꼭 그 자리가 내 것인 것 같아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내 공간을 침범당한 기분조차 드는 그 자리 일명 '지정석'이다.

아람누리도서관 종합자료실 한쪽에는 1인용의 작은 책상 하나가 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책 한 권이 펼쳐져 있다. 그 책은 바로 사서가 매일 아침, 도서관을 찾는 시민들에게 권하는 '오늘의 책'이다. 우연한 만남이 더 반갑고, 어떤 우연한 만남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듯이 이 책과의 만남이 누군가에게 운명처럼 다가갈길 바라며 사서는 오늘도 고심하며 그러나 행복하게 한 권의 책을 고른다.

이 자리에서는 '오늘의 책'만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손만 뻗으면 닿을 곳에는 사서가 매월 새롭게 뽑은 테마 도서, 권하고 싶은 신착 도서 그리고 너무 많은 인기로 예약(대기)조차 할 수 없는 인기도서들이 꽃혀 있다. 천국이 있다면 도서관 같은 곳일 것이라는 보르헤스의 말을 조금 바꿔, '아람누리도서관의 명당이 있다면 이 의자일 것이다'

③ 예술자료실

- 이달의 예술가

- 예술 특화 추천도서

전시회, 음악회를 보러 가는 것만이 문화예술활동은 아니다. 예술특성화 아람누리도서관을 유유자적 둘러보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예술을 접할 수 있다. 입구에 있는 포토존을 통해 고희, 르누아르, 마네의 그림을 만나고 지하 갤러리에서는 지역의 숨은 고수들의 예술작품을 관람한다. 2층 길목에서 카유보트의 '비오는 날, 파리의 거리'를 지나면 2만여 권의 국내외 예술 자료들이 가득한 예술자료실이 나온다.

이곳에서는 예술을 중심으로 하는 북큐레이션 '이달의 예술가와 '예술 특화 추천도서'로 볼거리와 읽을거리를 제공한다. 이달의 예술가를 통해서는 미술, 음악 등 분야별 예술가를 선정해 인물 정보와 해당 예술가의 저서 또는 관련 정보를 다룬 자료를 소개한다. 또한 '예술 특화 추천도서'에서는 예술 분야에 속하는 소주제의 다양한 테마와 관련 자료들을 전시하는데 특히 국내외 화제가 되는 이벤트, 전시회, 음악회 등과 관련한 기획으로 예술 활동과 독서의 연계, 확장을 돕는다.



④ 시민과 함께하는 북큐레이션

아람누리도서관에서는 2020년, 시민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한 북큐레이션도 계획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 기획하는 북큐레이션, 사연을 바탕으로 맞춤형 책을 처방하는 '당신만을 위한 책'이 바로 그것이다. 책을 통해 끊임없이 말을 걸며, 소통하고 싶은 사서들의 요구에 많은 시민이 응답해주길 바란다.